

‘방역·민생·통합’ 등 완전한 위기극복 위한 메시지 전한다

文 대통령, 오늘 신년사 발표

청와대, 올 신년사 주요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극복, 선도국가 원년’

빠른 일상회복과 함께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손실보상 등 지원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임기 마지막 과제는 ‘방역·민생·통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일상 및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일 공식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임년(壬寅年) 국정 구상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취임 후 신년 메시지와 신년사 발표, 신년 인사회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구체화해 온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힐 주요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 극복’,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으로 알려졌다. 일상이 회복돼야 민생 경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1일 청와대 본관 1층 중앙 로비 앞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청와대

제도 되살아나고, 선도국가로 전환할 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방역 강화’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

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전염병 방역 대응과 필요한 의료체계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다만 방역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에 ‘빠른 일상 회복’과 함께 정부 차원의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 다각도의 지원 방침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

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민생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최고의 민생 과제로 지목하며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속도도 낼 것이라고 했다.

일상과 민생 회복 장애물로 꼽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위협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국민 통합’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하나 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운영 구상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국론 분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관련,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시킨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우리 앞에 닥친 숭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특별사면과 복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북한의 대화 채널 복구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뒤 대화 채널도 사실상 단절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좌초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로 북한을 대화 채널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사실상 합의했고, 중국으로부터도 원론적인 지지까지 끌어낸 바 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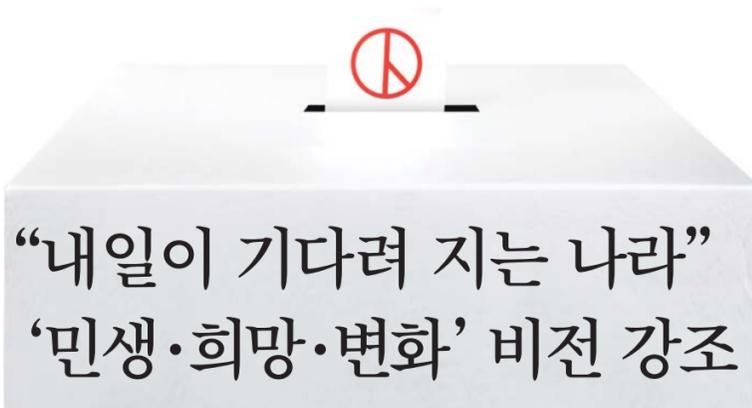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2022 대권후보 신년사 화두
코로나19 극복, 민생 경제회복 약속

2022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각각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 후보들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희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회복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 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한

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정치 권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께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그 자신감을 드높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다만,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희망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야당 후보들은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변화’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희망의 길을 여는 수단으로 만들어 자산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 소득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자. 정치의 변화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